

[특별기고]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의 축산·사료산업 현황과 전망



이 제 영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단장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인구도 우리보다 27배 이상으로 양국간 무역에 있어 중국이 보다 더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입장에서는 전체 교역품목 중 농수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커 협상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면 한·중 FTA가 타결되고 비준을 남겨둔 상황에 있는 현재 중국의 축산과 사료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아보자.

1. 한·중 FTA 축산부문 타결

한·중국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축산부문의 주요 타결내용은 일반품목으로 소, 돼지, 오리가 즉시 철폐, 민감 품목으로 소시지, 배합사료가

15년 철폐, 초민감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버터, 꿀이 양허 제외가 되어 당장은 큰 영향을 예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보장받지 못해 완충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2. 중국의 축산업 현황과 전망

연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경제상황이 최근 들어 7%대로 낮아져 축산업도 경제발전 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이 신상태(新常态, 신창타이, new normal, '새로운 상태, 시대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함.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언급, 신상태 개념은 경제발전 속도는 초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발전 추진

동력과 구조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임)의 큰 배경 아래에 진입하고, 축산업이 빠르게 구조조정 됨에 따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수급에 적응한 새로운 형태를 이끌어 낼 것이다.

미래 10년은 축산업의 생산과 소비 증가 속도가 점차적으로 완만해질 것이고, 수입은 안정되며, 축산물시장은 계속 수급 균형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축산물 부족시대와의 결별

인구 증가와 국민소득 수준의 제고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는 지속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예상된다. 명절이나 고기를 먹으며 보내던 시대에서 1979년 개혁개방 이래 축산업은 쾌속 발전기에 진입하여 고기, 계란과 우유의 부족한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2014년 육류생산량은 8,707만톤(돈육 5,671, 우육 689, 양육 428, 가금육 1,751, 가금란 2,894, 우유 3,725)으로 1978년에 비해 9.2배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도 9kg 이하에서 약 64kg에 이르러 괄목할 증가를 보였다.

한편 1978년 축산업 생산액은 209억 위안으로 농업총생산액의 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조9천억 위안을 초과하여 총 생산액의 약 1/3을 점하고 있다.

〈중국농업전망보고(2015-2024)〉에서 육류소비량 증가폭이 과거 10년보다 낮아

2024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100만톤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고, 소고기와 양고기 수입량도 각각 50만톤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육우산업

연속 10년간 상승해온 소고기시장의 파동과 수입 소고기 증가의 영향으로 소고기 시장은 올해 초부터 참담한 상황에 처해 판매량이 겨우 유지되는 가운데 출하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와 FTA가 공식 서명되어 수입 소고기의 관세도 없어져 가격도 더 싸질 것이다. 육우의 현 사육두수는 6,480만두이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 소고기생산량은 513만톤에서 689만톤에 이르러 34.3%가 증가하였다. 현재 생산량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여 세계 소고기 생산량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육우 출하율, 출하체중과 사료효율 모두 세계 평균수준 보다 낮으나, 이는 아직 잠재력이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육우산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산업체인을 건설하고, 육우, 소고기시장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소고기 생산비용을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 낙농업

2015년은 다사다난한 시기로 농가가 소를 도축하거나 우유를 쏟아 붓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올 4월부터 EU가 다년간의 낙농업 쿼터제를 폐지하여 증가된 우유가 유입된 원인과 뉴질랜드산이 중국시장에서

서로 쟁탈전을 벌여 발생되었다.

개별농가의 저능력우 도태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시장개방 상황에서 낙농업은 고난을 통해 내공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100두 이상 규모화 목표는 45%를 넘고, 젖소 평균유량은 6,000kg이며, 9,000kg 이상 젖소도 100여 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낙농업의 장기과제는 첫째 정책지원 강화로 젖소우량종 보조, 낙농업 알팔파 진흥사업, 젖소표준화규모사육 등 기존정책지원과 분유수매비축보조, 낙농구조보조, 신용대출지원정책 추진이다. 둘째 생산기술지도 강화로 우량종번식, TMR, 방역, 알팔파 생산가공 등 기술보급과 사육장 표준화 추진이다. 셋째 이익연결 메커니즘 구비로 낙농협력 경영조직을 조기에 발전시켜 낙농기업과 낙농가간 평등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원유품질관리 강화로 전국 원유품질안전모니터링계획 실시와 불법첨가제 등 금지물질 정비, 영유아분유원료 모니터링 검사와 품질안전 추적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중국산유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 양돈업

올해에야 2년여간 지속되어온 저돈가가 상승 전환하는 시점을 맞았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돈가조절통제사업의 직접적인 관여에서 완전한 시장자율조절에 맡겼다.

또한 돼지고기 수요도 식품안전을 추구하여 보통육과 첨단고급육의 수요분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4년 56.4만톤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이다. 그중 미국이 20% 내외를 차지하나 EU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몇 년간 돼지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한 것은 중국정부에서 식량차원에서 계속 임시비축정책을 수행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데 있지만, 곡물가격이 오르고, 사료원료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돼지생산비가 높아진데도 있다.

향후 환경보호는 양돈업과 가장 직결되어 진입문턱으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보호법>과 <가축규모사육오염방지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각성마다 경과기한을 두어 정화방법, 배출표준의 이행요구, 소규모농가의 정비 추진 등 가축사육오염방지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가축규모화 사육의 속도가 빨라 돼지 500두 이상 사육이 40% 이상에 달하여 이에 농업부는 75% 이상의 규모화 가축사육장에 대해 폐기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셋트화하여 설치토록 제안하였다.

마. 산란계 산업

중국은 전 세계 제 1의 가금란 생산국가로 세계 가금란 생산량의 40%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그간 산란계산업은 심한 풍파를 겪어 2012년에 시세불황, 2013년에 H7N9 AI 발생, 2014년에는 이익이 고르지 못한 상태로 상품계란 사육수익은 풍부하였으나 산란종계 손익은 교차하였다.

산란계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첫째는 거

시경제의 하행 압력이 커지고 있어 산업은 변화된 발전방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산업 발전 계획의 결핍으로 생산능력 과잉이 비교적 심하다. 셋째 계란 2차 가공능력이 강하지 않아 기업에게는 새로운 이익이 없다. 넷째 환경보호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어 산업 전체수준을 시급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10년 가금산업의 집약화, 규모화 발전에 따라 중국의 가금란 생산량은 계속 세계 선두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환경보호, 시장발전 등 요소의 제약을 받아 소규모 사육농가는 빠르게 퇴출되고, 산란계 사육규모는 한층 크게 조정될 것이다. 또한 가공 소비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 육계업

최근 몇 년간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주민의 소비는 축산물 안전과 악성질병 등에 영향을 받아 가금육산업이 조정기에 들어섰다. 생산량은 최근 연속 2년간 하락이 나타났으나, 가까운 장래에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으로는 회복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미래 10년 가금육의 생산방식이 빠르게 바뀌어 규모화, 표준화, 전업화와 집약화 정도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2013년 중국의 가금출하 2천수 이상과 1만수 이상 규모 사육농가 비율은 각각 85.6%와 71.9%이고, 100만수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육도 빠르게 발전하여 그 비율은 12%에 달한다. 육계사육의 규모화 비중은 한층 높아지고, 육계의

생산에서 도계에 이르는 일체화된 계열화 선도기업이 줄을 이어 나타나며, 고부가가치의 가금산물의 가공품 생산 개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로 보면, 현재와 같은 생닭이나 상온육 위주에서 벗어나 신선냉장육, 냉동육과 가공제품이 소비의 주류가 될 것이다. 그래도 미래 10년 가금육 소비는 돼지고기의 소비를 초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가금육 무역량은 겨우 50만톤 내외이고, 2024년에 이르러 수입규모는 60만톤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3. 중국의 사료산업 현황과 전망

가. 사료가공업

전 세계 사료생산량 상위 국가를 보면, 중국(183백만톤)이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순위 국가는 다음이 미국(173), 브라질(66), 멕시코(31), 인도(29)이고, 한국은 18백만톤으로 13위에 해당된다. 2014년 사료 총 생산량은 1.83억톤으로 2013년에 비해 2.6% 하락하였다.

사육업의 생산과잉과 기업의 생존경쟁 그리고 원료가격의 폭 등락으로 최근 사료업의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이에 현재 사료업체간 화두는 인터넷 상품화 전쟁, 수산 사료업체간 경쟁, 사료원료업의 전쟁이다.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전망 보고(2015-2024)에 의하면, 중국 사료공업은 이미 쾌속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하

여 포화식 성장이 미래 10년 사료시장의 주요 기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미래 중국 사료 생산량은 완만히 증가할 것이다.

2015년은 19,835만톤으로 예측되고, 2020년에는 21,430만톤, 2024년에는 22,706만톤에 이르러 전망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7.3% 증가속도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이다. 반추동물사료와 수산사료의 우세가 뚜렷이 나타나 2024년 생산량은 각각 1,286만톤과 2,4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옥수수

2015 옥수수 생산량은 사상최대인 2.32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전년대비 7.6% 높은 수치이다. 높은 생산량 증가 원인은 정부의 수매비축정책에 따른 가격 지지로 국제가격보다 30% 이상 높아 농가의 파종면적을 확대하도록 이끌었다. 반면에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대비 50%가 낮은 200만톤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업부는 2016년의 옥수수 파종면적을 줄여나갈 계획과 옥수수 수매가격을 하향 조절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중국내외 옥수수 가격차도 중국 바이어로 하여금 옥수수, 수수, 보리와 DDGS 등 대체품 수입을 크게 늘리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중국 내 수급 충족으로 2024년 옥수수 수입량은 720만톤의 할당액 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 대두

최근 몇 년간 대두 재배수익이 옥수수 재배수익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여 대두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감소되어 2014년 중국 대두 생산량은 약 11.2백만톤에 불과하다. 중국내 대두가공과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입 대두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2014/15년도 수입량은 71.5백만톤에 이르러 사상최고치 기록이 예상된다.

향후에도 대두는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할 것이다. 다만 대두 수요충족을 위해 중국 흑룡강성 농가와 기업들이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에 대량의 농지임대를 통한 대두생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2015년 상반기까지 러시아산 Non-GMO 대두 수입액은 643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28배의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러시아 개발수입은 증가가 전망된다.

라. 광물질 첨가제

2013년 상반기 중국 사료업의 판매량 증가는 10년내 최저점이었고, 이에 따라 사료업의 불경기로 미량광물산업도 좋지 않았다. 중국의 사료업은 과거와 같이 높은 속도의 발전을 다시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고, 이는 미량광물산업이 사료업 고속성장의 이점을 누리던 것도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자원, 가격, 기술이나 서비스에 편승하여 계속 경영할 수는 없고, 새로운 생존법칙을 찾아야할 갈림길에 다다랐다. 따

라서 향후 미량광물산업의 발전방향은 수입에서 중국산으로, 단일광물질에서 복합광물질로, 무기광물질에서 유기광물질로 또 혼전된 시장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산업으로의 정착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 동물약품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극히 낮아 정부에서는 동물약품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산둥성 정부의 경우 <산둥성 농산품 품질안전감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산둥성 수의약품 경영고지관리방법>을 발표함에 따라 수의약품 경영자는 모든 수의약품의 관련 경영상황을 반드시 감독관리부서에 고지하게 되었다.

또한 하남성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위조제품과 생산일자 철크를 위해 사료와 수의약품의 추적체계 검사가 가능한 최소포장상의 QR코드를 통과하여 해당기업과 해당축산물의 기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

이상과 같이 중국 축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사료산업의 성장은 이전보다 둔화할지라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호, 방역과 식품안전이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경영모델은 축산업 “생산과 판매” 일체화, 1, 2, 3차 산업 융합발전의

추세로 빨라지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거래가 활기를 더할 것이며, 생축과 종축 수입 그리고 해외축산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과 사료산업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지만,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개별로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우리와 근접되거나 뛰어난 수준을 보이는 부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당장 한·중 FTA 타결의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지리적 여건, 자금력, 계획적이고 정책적인 수출산업육성전략, 생산비와 상관없이 수급차원의 수출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에게만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축산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입에 대한 방어적 대응과 더불어 대중적인 물량위주 수출보다는 고급화와 안전성을 내세운 수출가능 틈새시장의 지속적인 개척이 필요하겠다. ☞